

Economist
Global Strategist
유신익
02) 3787-2186
sinik@hmcib.com

Jr. Economist
최진호
02) 3787-2514
jh.choi@hmcib.com

Korea saddle point: 9월 한국 고용, 투자 증대로 점진적인 안정권 진입 예상

- 9월 실업률(비계절조정) 2.7%, 고용률 60.4%, 전체 취업자수 증가 2개월 연속 40만명대 기록
- 한국의 고용부문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임금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 상황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제조업 부문 취업자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으나, 제조업 설비투자 증대로 인해 추후 상승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총 취업자수가 40만명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경제의 확장 전망. 따라서 향후 한국 경기가 점진적으로 안정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한국 9월 실업률(비계절조정) 2.7% 고용률 60.4%

한국의 9월 실업률(비계절조정)은 2.7%를 기록하며 전년비 0.2%p 하락했으며, 고용률은 전년비 0.4%p 상승하며 60.4%를 기록했다. 총 취업자수는 상용직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546만 6천 명을 기록하며 전년비 46만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체 취업자수는 2개월 연속 40만명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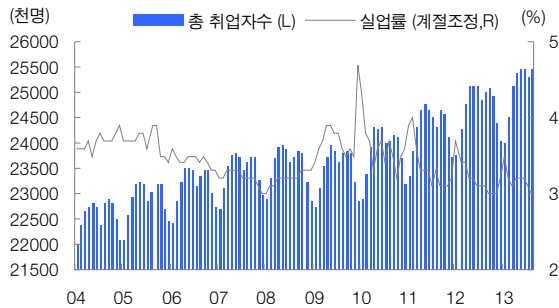
주요 산업별로 취업자수 증감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보건/사회복지(17만2천명, 12.0%), 숙박/음식점(8만3천명, 4.3%), 사업시설/관리(4만2천명, 3.7%), 운수업(4만1천명, 3.0%)이 증가했으며 전문과학/기술(-2만1천명, -2.0%),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1만2천명, -0.9%), 도매/소매(-1만1천명, -0.3%) 부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3개월 연속 감소세(4월: 4.1% → 6월: 2.4% → 8월: 0.1% → 9월: 0.5%)에서 벗어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부문의 위축세(제조업 생산 전년비 증가율, 5월: -1.4% → 6월: -2.5% → 7월: 0.9% → 8월: 3.4%)로, 동 부문의 고용 여력이 약화되었으나 최근 제조업 설비투자 증대(7월: -8.3% → 8월: 4.6%)로 인해 노동수요가 소폭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취업자수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전년비 증가(59만 7천명)한 반면 임시근로자(-2만 4천명)와 일용근로자(-6천명)가 감소하며 임금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임금근로자의 감소폭이 확대(8월: -7만 4천명 → 9월: -10만 4천명)되었고, 특히 자영업자의 감소(8월: -5만 7천명 → 9월: -7만 9천명)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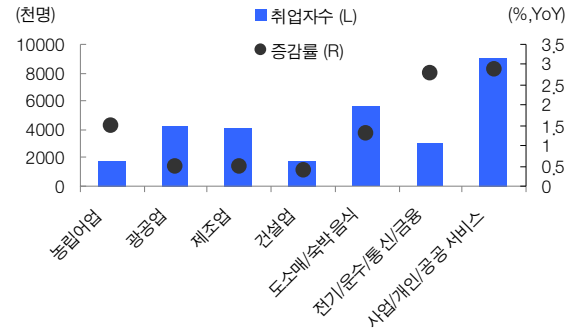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의 고용부문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임금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제조업 부문 취업자수 증가율은, 제조업 설비투자 증대로 인해 추후 상승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총 취업자수 증가폭이 40만명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표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급 경제의 확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경기는 점진적으로 안정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 한국 취업자수와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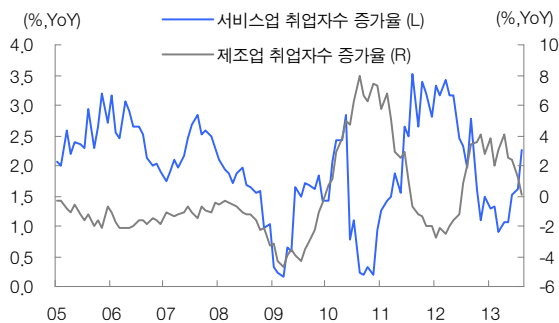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HMC투자증권

〈그림2〉 9월 한국 주요 산업별 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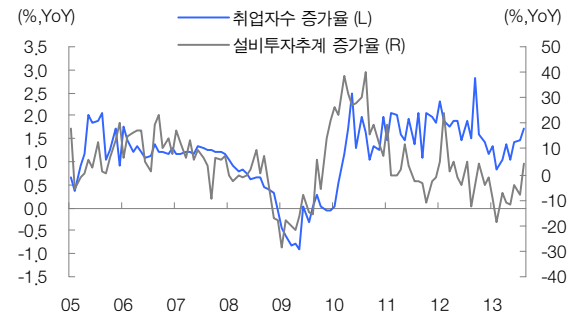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HMC투자증권

〈그림3〉 한국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HMC투자증권

〈그림4〉 한국 취업자수 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



자료: 통계청, HMC투자증권

- 본 조사항목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